

# “코로나 위기는 진행형… 규제 이제그만, 기업 氣 살려야”

## 경제 단체장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지속 추진되는 기업 규제안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역협회 등은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회복 불씨가 생겨 다행이라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낙은 법과 제도를 혁신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올 양극화와 인적자원 배치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경제 역성장을 피할 수 없었지만, ‘K-방역’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버틴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회고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새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부담 늘어 경쟁국과 동등 경쟁여건 갖춰야

작년 하반기 성장률 반등 ‘회복’ 규제 샌드박스 등 법·제도 혁신

## 손경식 경총 회장



## 허창수 (주)GS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력 비판 ‘기업, 멈추면 죽는다’ 규제혁파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2021년, 생사 기로에 서는 한해 기업·국민·정부 삼위일체 돼야

##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 일상 되찾기 위해 정치권 갈등 그만둬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통합·평화·안전’을 위한 ‘한 헌신’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포함한 각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우리 국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 “사회 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비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박 의장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별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며 “당리당락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혼란·불안 극복하며 앞으로 나가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도약’, ‘사회 갈등 완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이미 우리는 전환의 시대에 진입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전환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며 “전환에는 혼란과 불안이 따른다. 코로나19가 덮친 지금은 혼란과 불안이 더욱 크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선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대표

##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 극복”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동행’ 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 혼란, 부동산 대란, 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 국민의 삶은 더욱 고涸해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제구 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은 펼쳐낸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 포기말고 희망의 끈 만들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희망’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안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한해였다. 어려웠던 형편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이 겹친 탓이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부덕하고, 책임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래는 포기할 수 없기에 함께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만들어 가자”며 “단합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새해에는 희망의 창을 활짝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존엄 및 안전’, ‘전환’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한 사회 전환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며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취업 위기에 몰린 청년, 성폭력 등에 고통받는 여성, 차별로 힘든 소수자와 장애인 등을 언급한 뒤 “이들에게 2020년은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개척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위기를 또 다른 계기로 삼는 전환의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